시집

200g

미소

김기덕 저

료녕민족출판사

시집

200g

미소

김기덕 저

微笑

료녕민족출판사

© 金基德 2016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微笑：朝鲜文 / 金基德著.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6.5

ISBN 978-7-5497-1319-6

Ⅰ. ①微… Ⅱ. ①金… Ⅲ. ①诗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 ①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6）第096728号

微笑

WEIXIAO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135mm×210mm
印　　张：7.625
字　　数：150千字
出版时间：2016年5月第1版
印刷时间：2016年5月第1次印刷
责任编辑：成玉贤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1319-6
定　　价：30.00元

法律顾问：陈　光　　举报电话：024-23284336
版权专有　侵权必究　　邮购电话：024-23284335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联系电话：024-23284340
网　　址：www.lnmzcbs.com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저자 김기덕

길림성 교하시 출생.

길림성 교하시교원연수학교 연구원.

력임 《길림신문》《중국조선족소년보》특약기자, 길림성교육과연구잡지 특약편집.

1981년 《중국조선족교육잡지》시 “코스모스” 발표하여 문단에 데뷔.

2001년 《한국월간》“문학세계” 시부문 신인상 수상.

2009년 《문학세계》“제5회문학상” 시부문 금상.

2011년 7월 연변시가협회 “청마문학상” 수상.

2011년 12월 청도연해문인협회 “연문컵” 최우수상 수상.

2012년 8월 연변작가협회 “가야하”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4년 8월 《료녕일보》 압록강문학상 시부문 금상 수상.

시집《천 년이 가도 잠들지 않는 파도》 한국천우출판사 출간.

현재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회원, 길림시작가협회 회원, 청도조선족작가협회 회원.

두번째 시집을 내며

2002년 봄날에 첫번째 시집을 펴낸후 두번째 시집을 펴내기까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열세번째 봄을 맞이했다.

봄이 좋았다. 시가 봄을 만나 꽃나무가지마다 생기가 돌고 산과 들에는 새 생명들이 탄생하느라 아름다운 숨결을 감칠맛나게 토해내였다.

2002년도는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어치던 해였다. 농민들도 농사를 포기하고 한국에 가려고 모험을 무릅쓰고 은행대출하고 친구 친척들에게 돈을 꿔 모아서 한국 입국하는 초청장을 일인 7만원씩 사서 이름을 바꾸고 머리를 바꾸어 한국으로 가는 교포들이 부지기수였다.

한국에 나가는것이 대박이였다. 가산을 탕진하여 한국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항에서 발각되여 나가지 못한 교포들, 배타고 밀항하다 붙들린 교포들도 많이 있었다. 며칠 밤낮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고 내리라고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

하여 부두에 내렸더니 중국의 어느 해변도시였던 청천벼락 맞은 사기도 많았다.

2002년도에 나는 한국《문학세계》의 신인상 공모에 입선이 되여 초청장을 아주 쉽게 받았다. 부부간이 한국 입국비자를 일주일만에 손에 쥐게 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참말로 꿈만 같았다.

입선된 시가 4수였는데 동창생 지인이 하는 말이 한 수의 시 원고료가 중국 인민폐로 4만원이나 된 셈이다. 정말로 부럽다고 사람들 모이는 장소마다 시문학에 대한 흠모를 아끼지 않았다.

반세기넘게 살아오면서 시의 파워가 이렇게 강하게 느끼기는 처음이였다.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손에 쥐고 꿈인지 생시인지 고압전류가 가슴을 찡하게 스쳐지나간듯 흥분에 휩싸였었다.

시가 고맙고 시가 사랑스러웠다. 시는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주었고 향후 전망을 밝게 열어주었다. 그래서 그때에는 시가 하늘의 별을 땄다는 생각도 들었었다.

목록

두번째 시집을 내며 001

제1부 땅 001

땅 002

그리운 풀빛 004

버들피리 006

산꽃 (1) 007

어머니 008

봄날의 모습 009

고향의 사계절 011

미소 200g 013

마음을 비우고싶어 015

봄빛 017

봄비 018

우수(雨水) 020
지금 022
풀씨 024
하늘과 땅 사이 026
고향길 028
고향의 흙 030
고향의 저녁 031
강물처럼 살리라 033
갈대 035
제2부 하늘 037
아버지 고향 038
시(诗) 바람 040
철길 (1) 042
철길 (2) 044
가을빛 046
어머님의 손길 047
복숭아꽃 (1) 049
복숭아꽃 (2) 050
달밤의 소리 051

가을빛 (8) 052
가을빛 (9) 054
새들은 울어야 산다 056
콩밭에 058
가다 돌아온 피리소리 060
그때의 밤이 옵니다 061
당신의 헌옷이 된다면 063
목화석(木化石) 065
바람에 우표를 붙이고 066
옹달샘 068
하늘에 별이 있기에 070
여기에 새 정이 들었습니다 072
제3부 바다 073
어부 074
바다 076
파도 (6) 078
파도 (7) 080
파도 (8) 082
파도 (13) 084

나 086
5월의 감성 088
엄마와 어머니 090
시골의 봄 092
시내물 094
착각 095
저가락끝에 097
흙으로 읽는 시 099
섬 101
산에 들에 102
꽃 (16) 104
꽃 (17) 106
꽃 (18) 108
여기에 새 정이 들었습니다 110
제4부 마음 111
아버지의 한 112
시골을 가다 114
호수 116
냉이 118

막걸리 119
사과 121
밤비 122
달아 123
가을이 오니 돈이 보인다 125
날지 못하는 새 126
나이 들수록 127
밤 129
추억의 동공 131
님과 나 사이 (4) 133
님과 나 사이 (5) 135
님과 나 사이 (6) 137
오이꽃 139
입 141
가지꽃 143
참쌀 145
제5부 얼 147
나무의 넋 148
길 150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

하늘이 보낸 편지 152
가을은 여기서 154
넋의 소리 들으며 156
무송(雾淞) 157
리별(离别)도 별(星)인가 158
그 사람을 보면 160
벼 162
정미소 163
꽃잎 지던 날 165
버들강아지 166
위해(威海) 바다가에서 168
봄이 옵니다 170
봄날의 감각 172
지게 174
겨울의 풀 176
겨울과 봄 177
깨잎 178
가을의 화음 180
제6부 별 183

별이 되고싶어 184
별빛 186
북극성 188
추성(秋星) 189
하늘에 별이 있기에 191
달빛 193
별 하나 194
별들의 캠퍼스 195
삼태성 196
북두칠성 198
명왕성 200
별들의 마을 202
시골역 204
어린 시절 205
그 사람이 보고싶다 206
식사를 하셨습니까 208
노래나무 210
시와 인생 211
서평 《미소 200g》을 맛보다 우상렬 214

제1부

地 땅

땅

귀 떨어진 나무가지에 소독을 끝내고
작년에 씨 받은 땅의 호흡이 남아있다
아침 일찍 한해의 밤을 떠나보낸
걱정깊었던 머리에 새 아침을 염색하고
동이 터오는 나의 땅에
복 많은 꽃씨를 뿌리였다

새해의 덕담을 고려 청자에 주어담고
앞표지에 오랜 꿈을 새겨넣고
우표에 밝아올 래일의 끝머리에
나는 이 땅의 새 주소를 쓰고있다

하늘에 길게 써놓은 한줄의 리력서
철새들을 불러놓고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는

하루의 표정에 가을이 고개를 숙이고있네

땀 흘리는 사랑의 그림자 해살처럼 모여들고
볼수록 숲처럼 무성해지는 자랑스러운 언덕
나는 나의 피와 살을 모두 드릴 준비가 되였었다

그리운 풀빛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이 오면
새벽이슬 맺힌 그리움이 반짝입니다
바지가랭이 푹 젖도록 걷고싶은
풀빛이 생글거리며 반기는 시골의 길
나의 인생은 그 길로 곧추 달려왔습니다
비바람이 세찰수록 더 굳세였던 나날
오직 그 한자리만을 다녀온 진한 풀빛
오늘은 그 길을 눈으로 그려봅니다
파란만장이 충혈된 눈으로 물들인 날
누군가 그 길로 떠나가서
한번도 돌아온적이 없는
젊은시절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잃어버린 세월의 무릎 뼈처럼
바싹 마른 쑥나물로 서있습니다

试读结束：需要全本请在线购买： www.ertongbook.com